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건 공포

전문가 “막연한 두려움 떨치고 예방관리 힘써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우리 사회의 평온을 깨뜨렸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국회와 법원이 문을 닫고 초·중·고교는 개학을 연기했으며, 프로 스포츠도 정상적인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공립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을 중단했다.

코로나19 관련 무성한 소문은 SNS와 유튜브 등을 매개로 순식간에 퍼져 나가 시민들이 공포와 불안감에 떨고 있다. 대

다수 시민들은 코로나19 공포로 바깥 출입을 꺼린다. 기업과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직원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온 사업장은 폐쇄됐고 생산라인이 멈춰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가장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해 방역상 '봉쇄' 조치를 취하고 추가경정 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는 대구·경북지역 민심에 찬물을 끼얹었다. 당정청에서 언급한

'최대 봉쇄조치'가 이동권을 제약하는 것인 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며,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서둘러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을 지시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말로 대구가 봉쇄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은 뒤늦게 "최대한의 봉쇄정책은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봉우 기자
<2면으로 이어짐>



코로나19 확진자인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최근 미래통합당 주최 국회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급 폐쇄에 들어간 국회가 25일 본청과 의원회관 등 모든 시설에 대해 소독작업을 실시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구청장 사과·인사위원회 사퇴 여론 비등

참여자치21 “광주 남구 인사위원회가 면죄부 역할 자임”

〈속보〉 광주 남구가 구청장의 측근으로 얼마 전 총선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공직을 사퇴했다가 후보자가 중도사퇴하면서 갈 곳이 없게 되자 한 달만에 다시 이들을 과장급 간부공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구청장의 부적절한 정실인사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꾸려진 광주 남구 인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들러리를 지켰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21일 25일 성명서에서 “남구가 단 3일만에 속전속결로 부적절한 인사행정을

을 했던 것은 남구 인사위원회가 일사천리로 면죄부 역할을 자임했기 때문”이라며 “김병내 남구청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남구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남구는 지난 19일 전문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보좌관과 홍보기획보좌관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채용 예정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병내 구청장의 선거 캠프에 있다가 김청장이 취임하면서 대외협력관(5급)과 기획실 주무관(6급)으로 임명됐던 구청장 측

측근들로 지난달 퇴직하고 특정 국회의원의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했다.

하지만 해당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허공에 뿔고, 남구청은 이들을 다시 채용하기로 했던 것.

구청 인파에서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남구 인사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채용을 의결했다.

설령 시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더라도 이들을 채용하겠다는 김청장의 의지가 강력한 데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남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다음날인 20일 면접을 실시하고, 21일 정식 임용하면서 채용절차는 단 사흘 만에 마무리됐다.

김경석 기자



마을 농가에서 농부들이 마을 순 울리기 작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 월동작물인 마늘은 늦가을 비를 수확한 뒤, 파종해 이듬해 초여름 출하하는 작물이다.

풍작이 외려 걱정인 마늘 농가도, 수급안정대책 대정부 건의

1973년 이래 가장 따뜻한 겨울 재배면적 늘고 생산속도 빨라
생산과잉으로 수급문제 불보듯
재고 처리 등 선제적 대응 필요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 재배 농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난히 따뜻한 겨울 날씨 탓에 생산속도가 예년보다 빠르면서 웃자람까지 보인다.

올해 1월 전국 평균 기온은 영상 2.8도로 기상청이 관측망을 전국 곳곳으로 대폭 확충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으며, 강수량 역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렇듯 높은 기온과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마늘·양파 등 월동작물 생산은 예년과 비교해 매우 빠른 상황이다.

이처럼 풍작이 예상되면 농가들이 기뻐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지난해 생산 과잉으로 재고 물량이 많아 간마늘 가격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올해 작황마저 좋아 생산량이 또 늘어났다면 작금의 사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마늘 농가 사이에선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 예감과 함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마늘은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소폭 증가했고, 겨울철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판매하지 못한 마늘 저장량이 많기 때문에 재고물량 처리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가 25일 재고 물량 처리 등 실효성 있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전남지역 주요 재배품종인 남도종의 경우 농협 재고량이 5천t 가량 쌓여 있어, 재고량이 4월까지 소진되지 못하면 가격이 더 하락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수확기(5~6월) 이전 정부 차원의 마늘 가격안정 대책 마련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저장중인 재고량 가공지원 등 소진 대책과 함께 올해산 마늘에 대한 정부 비축수매 확대, 시장격리, 수입산 관리 강화와 같은 실효적인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요청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산물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마늘 가격도 많이 하락했다”며 “마늘 수확기 이전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월 넷째 주 기준 간마늘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가격은 1kg당 3천 9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1%, 평년 대비 41% 하락했다.

특히 남도종 마늘의 경우 매운 마늘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 패턴의 변화로 산지 가격이 1kg당 800원~1천400원 수준에 거래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허성은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 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